

포항시,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건립… “AI G3 강국 도약”

오픈AI-Neo AI Cloud 공동 추진
데이터센터 건립 최적조건 갖춰
신규고용 등 국가적 파급효과 예상

포항시가 오픈AI와 NeoAI Cloud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AI데이터센터 건립지로 최종 확정됐다. Neo AI Cloud는 지난 6월 MOU 체결 이후 포항시와 긴밀히 협력해 온 기업으로, 이번 성과는 포항이 대한민국 AI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포항시는 그동안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유치, 육양국 연계 데이터센터 구축, 애플 R&D 지원센터 유치 등 굵직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AI도시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와 인재·산업 역량의 결집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포항이 최종 입지로 선정된 데에는 포항만이 가진 도시의 강점이 크게 작용했다. 철강·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방대한 산업 수요, 포스텍·한동대를 중



포항시청.

심으로 한 우수 인재, 방사광가속기·극저온 전자현미경·로봇융합연구원 등 세계적 연구개발 인프라, 울진 원전과 연계된 안정적 전력 공급까지, 데이터센터 건립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다.

이번 AI데이터센터 건립은 단순 인프라 유치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폭넓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수조 원대 투자와 함께 건설·장비·운영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운영·보안·개발 분야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 아울러 철강·이차전지·바이오 산업과 AI

가 결합해 스마트제조, 신소재 개발, 신약 연구 등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며, 지역기업은 글로벌 진출 기회를 넓히게 된다.

시는 정부, 오픈AI, NeoAI Cloud와 협력해 AI데이터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 패스트트랙 전담 TF팀을 구성해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건립이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앞으로 AI데이터센터를

구심점으로 산업·경제·사회를 아우르는 전주기 AI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고,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AI 고속도로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반세기 철강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포항은 이제 AI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AI G3 강국 도약을 견인하는 글로벌 AI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픈AI와 Neo AI Cloud의 글로벌 AI데이터센터 유치는 대한민국이 AI 초강국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이라며 “세계적 수준의 AI데이터센터가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전력·임지 등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AI G3 강국 도약을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픈AI는 AI 인프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력에서 오픈AI는 동남권(포항)과 서남권(전남)에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t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출산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남 진도군은 출산 가정과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복합공간인 ‘출산통합지원센터’가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산통합지원센터는 ▲어린이 자동차 놀이시설 ‘도담도담 놀이터’ ▲수유실 ▲맘앤아이 쉼터 ▲프로그램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공동체 중심의 육아문화 활성화를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국립부경대

美 30개 대학 참가 유학 박람회

국립부경대학교는 미국 국무부 산하 EducationUSA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3시 부경컨벤션홀에서 ‘PKNU 글로벌 유학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0개 미국 대학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미국 유학에 관심 있는 지역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박람회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각 대학 입학담당자가 입학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 학부 장학금 정보 등을 직접 안내한다.

참가대학은 애리조나주립대, 존스홉킨스대, 캐리 경영대, 노스이스턴대 등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809명 신규채용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9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809명을 선발하는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에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조리실무사 350명 ▲돌봄교무행정실무사 214명 ▲특수교육실무사 100명 ▲돌봄전담사 94명 ▲교육실무사 33명 ▲교육복지사 1명 ▲전문상담사 3명(임상심리사 1명, 전문상담사 1명, 117센터 1명) ▲사감 3명 ▲기관운영실무사 11명 등으로, 결원 및 증원에 따른 기관별 필요 인원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산교육청은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울산시

‘AI 대전환 사업’ 최종 선정

울산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4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AI 활용도가 낮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AI 기술 도입을 지원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를 주관 기관으로 하고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참여했다.

/울산=손병호 기자

광주시, ‘글로벌 AI 컨퍼런스’ 열어

오는 15~16일 이틀간 진행
세계 석학·혁신기업 한자리에

세계적 석학과 혁신기업들이 광주에 모여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시는 오는 15~16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적 인공지능(AI) 학술대회인 ‘글로벌 AI 컨퍼런스(AI ICON) 광주 2025’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AICON 광주 2025’ 주제는 산업·도시·시민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공지능 전환(AI)의 물결이 광주에서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아 ‘더 AX 웨이브(The AX Wave), 광주’로 결정됐다.

행사는 광주의 인공지능 미래 비전을 담은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해 강기정 광주시장 환영사, 오상진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장 개회사, AI 작곡과 피아노 협연 공연 등이 이어진다. 또한 광주시와 인공지능기업 10개사는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진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가 ‘국내 AI산업 육성 정책과 현황’을 발표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LSE) 유영진교수가 ‘생태계로서의 AI’에 대해 기조강연한다.

컨퍼런스와 연계해 인공지능 혁신 기술 전시회인 ‘AI 테크플러스(TECH+) 2025’도 열린다. AI 반도체, 컴퓨팅, 클라우드, 드론,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울산시,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

숙박·식음·교통 관광기반 개선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 운영

울산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친화 관광도시 조성에 본격 나섰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육성을 통해 관광 산업 영역을 넓히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울산시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공모에 전국 단체 중 최초로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숙박·식음·교통 등 반려동물

친화 관광 기반 개선, 지역 특색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울산의 자연 속에서 반려동물과 즐기는 도보여행 관광 프로그램 ‘미션 명파서블 울산’, 딸기 및 배꽃 농장 생태 체험 등 반려동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치유 관광, 반려동물 동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 및 관광 사업체 특전 지원, 반려동물 관광 택시를 통한 맞춤형 이동 서비스 제공 및 전용 도시관광 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관람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울산=손병호 기자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국비지원을 40% → 80%로 확대

경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중 공모로 6개 군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경남도는 지방비 부담분의 30%를 분담한다.

농식품부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 후 17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

이다. 경남에서는 의령 등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이 신청 대상이다.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율이 40%에 불과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경남도는 농어업인 수당을 내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도비 142억원을 포함한 440억원이 필요하고, 7월 집중 호우 수해 복구비로 도비 98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율을 현행 40%에서 최소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수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간담회.

/창원시

창원시, ‘탄소중립 우수사례’ 장관 표창

3개 분야 차별화 모델 운영

창원시가 환경부가 선정한 ‘2025년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 사례’ 기조지자체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및 기조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76개 지자체가 제출한 탄소중립 우수 사례를 전문가 심사를 통해 평가했다. 그 결과 기조 4개소, 2개소, 기업 1개소 등 총 7개소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창원시는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3개 분야의 차별화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민관 협력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에너지 컨설팅 및 시설 개선 지원, 수출 중소기업 탄소 규제 대응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시민 참여 분야에서는 경남은행과 협약한 기후 행동 재테크, 그린리더 시민 실천운동 등을 운영한다. 기후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취약 가구 차열 페인트 도장, 시원 지붕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